

**전일동향**

전일대비 17.60원 상승한 1,396.20원에 마감

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7.60원 상승한 1,396.2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달러-원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4.60원 하락한 1,374.00원에 개장했다. 트럼프 후보가 예상보다 일찍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, 트럼프 승리 베팅 전망이 확산하자 환율은 상승 폭을 확대했다. 이에 점심시간 무렵 1,399.70원에서 고점을 찍었다. 네고 물량과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에도 환율은 1,390원대 후반대를 유지하며, 1,396.2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25.7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06.48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74.00	1404.40	1374.00	1396.20	1391.50
엔화	909.73	911.52	901.46	903.31	-	
유로화	1506.03	1508.81	1495.01	1498.91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44	-5.8	-12.44
결제환율(수입)	-0.73	-4.79	-10.57	-21.54

\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\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**금일 전망**

트럼프 당선에...1,40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2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96.20) 대비 4.40원 상승한 1,399.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트럼프 재집권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으며, 상원 및 하원도 공화당이 모두 승리하는 '레드 스윙'이 유력해졌다. 레드 스윙이 현실화되면, 트럼프 공약의 추진 동력이 강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. 이에 미국 10년물은 16.30bp 상승해 4.436%를 기록했다. 달러화는 1.59% 상승한 105.11pt로 마감하며 초강세를 보였다. 한편 유로화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등에 약세를 보였다. 달러-엔 환율은 외환개입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에 급등했다.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달러 강세에 금일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환전 수요 등 달러 실수요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와 수출업체 고점매도 등은 환율의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
<b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b>	<b>1396.00 ~ 1408.40 원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027.08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.4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3729.93, +1508.05p(+3.57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34.39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1315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